양산 지역 사찰벽화 한 자리에

'양산의 사찰벽화' 展
통도사성보박물관 · 양산시립박물관 4월 10일~6월 10일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 등
벽화 모사본 등 200여 점 전시
양산 불교문화 우수성 홍포 기회
'사찰벽화 연구' 학술대회 개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통도사 영산전 '견보탑품도'

양산지역 사찰벽화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 지준)은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과 공동으로 4월 10일(화)부터 6월 10일(일)까지 '양산의 사찰벽화' 展을 개최한다.

통도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양산시립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통도사와 신흥사 등 양산 지역의 전통사찰에 그려진 대형 벽화 모사본과 관련 자료들을 선보이며, 양산시립박물관에서는 소규모 벽화와 모사본, 관련 유물, 영상 등이 전시된다.

양산 지역은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보고라고 불리는 통도사를 비롯해 많은 전통사찰이 모여 있는 유서 깊은 불교의 고장으로, 통도사와 신흥사 등에 수많은 전설과 다수의 보물급 불교문화재가 남아있다. 특히 불교 경전과 교리의 내용을 그림으로 남긴 사찰벽화와 다양한 불교문화가 남아있다.

사찰벽화는 전각 내외 벽면과 여러 부재에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그린 그림으로, 양산에는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보물 제1711호)와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물 제1757호) 등 보물급 벽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벽화들이 남아있다.

통도사 영산전 벽화 중 '견보탑품도'는 거대한 보탑 안에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이불병좌의 모습을 표현한 벽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을 펼칠 때, 다보여래의 보탑이 땅에서 솟아 그 설법에 대해 감탄하니 석가모니부처님이 탑 안으로 들어가 다보여래와 같이 앉았다는 〈묘법연화경〉 중 '견보탑품'의 내용을 형상화한 벽화다.

신흥사는 대광전이 있어 빛난다. 대광전 내 · 외벽에는 80여 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대부분은 내벽에 있는데, 남벽과 북벽, 동서벽의 상부포벽, 후불벽 등에 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도상과 형상 등에서 전형적인 17세기 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남벽의 '아미타삼존도'는 17세기 후반의 귀중한 사례로 꼽힌다.

총 20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양산지역 불교문화에 대한 우수성과 학술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지준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사찰벽화를 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양산에 있는 훌륭한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 문화재의 훼손을 막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함께 모색해야 한다." 며 많은 관람과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4월 14일(토) 양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이번 전시와 연계한 제31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가 열린다.

민화 학자인 경주대학교 정병모 교수가 기조강연으로 ▲'사찰벽화의 다양성과, 민화의 보고'를 발표하고, ▲통도사 관음전의 조영과 관음보살벽화 : 김미경(문화재청) ▲통도사 대광명전 내벽(內壁)의 신선도(神仙圖) : 장준구(이천시립월전미술관) ▲벽화에 사용된 녹색안료의 채색 특징 비교 : 김민(국민대학교 김민 겸임 교수) ▲한국 사찰벽화 보존현황 및 보존관리 방안 : 이경민(국립문화재연구소)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범어 빨리어 그리고 인도 문자예술 서예' 展

인도박물관 4월7일~5월 3일

인도박물관(관장 김양식)은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도웅 스님의 '범어 빨리어 그리고 인도의 문자예술 서예'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도의 문자전으로 범어를 중심으로 빨리어, 데바나가리 등 다양한 인도의 문자를 서예의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인도 정신문화의 핵심인 베다와 바가와드기따, 힌두교 신들에 대한 찬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교의 경전과 다라니, 불보살들에 대한 경배와 논서의 구절이 담겨 있다. 범어 외에 빨리어에 대한 경전도 포함되어 있다.

도웅 스님은 1966년 출가하였으며, 1989년부터 인도 바라나시 Sanskrit 대학에서 수학하며 범어와 인도의 문자예술에 대해 연구했다. 2012년에는 '한국범어연구원'을 설립하여 범어와 인도의 문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에 인도의 문자예술을 살펴보고 불교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범어반과 운율(곡조)이 있는 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범어노래반을 운영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도의 문자와 범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2-585-2185.

박재완 기자

사진과 詩로 여는 명상의 세계

인경 스님 포토 명상시 '순례자의 은빛나무' 展
법련사 불일미술관 4월 16일~25일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이자 목우선원장인 인경 스님은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순례자의 은빛나무-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의 초대' 展을 개최한다.

그동안 불교명상과 심리학을 융합한 명상심리치료가 현대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진단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명상'의 저변을 확장해온 인경 스님이 사진과 명상시라는 또 다른 언어로 새로운 명상의 세계를 선보인다. 스님은 다양한 풍경 속에서 직관적으로 포착해낸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유의 스펙트럼을 문자로 옮긴, 명상시 70여 점을 선보임으로써 다시 한 번 '명상'을 확장시킨다.

"꽃이여, / 텅 빈 종이 위에서 / 이름은 단지 흔적일 뿐, / 너의 영혼이 아니다.// 새 발자국 소리도 / 들리지 않는 깊은 안개 속, / 푸른 빛 기억속의 잎사귀들 뒤척이며 / 감각의 몸 느낌을 따라 줄기 줄기마다 / 실핏줄의 작은 날개 퍼덕거리며// 이제 누각의 옛길을 따라 / 가랑비 쏟아지는 코끝 면전에서 / 달빛으로 피어나는 너는 / 너는 누구냐."

글은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인경 스님의 명상시 '너는 누구냐'이다. 글은 춤을 추는 듯한 백련의 모습(사진)에서 왔다.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 알아듣는 순간, 그 순간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 스님의 카메라는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직관이 주는 언어를 받아 적는다. 길에서 만난 백련은 또 다른 언어로 다가온다. 백련이 말하는 것인지, 백련을 바라보는 마음이 짓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은 사진과 시라는 언어로 바뀌어 한 장의 경관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경관들이 모여 한 권의 경전이 되었다. 인경 스님의 '순례자의 은빛나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사진과 명상시는 책으로도 나온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이 산과 저산을,/ 이 도시와 저 도시를 떠돌면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일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구하면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수하고 맑고 자연스런/ 세상에 없는 다섯 번째 계절,/ 일상의 자기를 초월하여 스스로의 본성이/ 온통 그대로 드러낸/ 반복된 순환이 잠깐 멈추는 결정적 그 순간/ 순례의 길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상에 없는 다섯 번째 계절, 이번 전시는 그 다섯 번째 계절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전시회 포스터 이미지 사진(대관령 양떼 목장)

인경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간화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이며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명상상담연구원의 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 〈화엄교학과 간화선의 만남〉 등의 저술과 번역서로 〈위빠사나 명상,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수용전념치료 임상가이드〉, 〈심리치료와 불교〉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용문사 '천년~ 문화제'

14일 본공연, 10월까지

용문사(주지 보인)는 4월 14일(토) 경내에서 '호국사찰 용문사 천년은행나무 문화제-천년의 향기를 나누다'를 개최한다. 문화재청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4일 본공연 '양평군민과 함께하는 젊은 희망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사진&UCC 강좌(10회) ▲문화유산 바로알기 물소리길 체험 강좌(7월) ▲천년은행나무 전통의식 체험, 천년은행나무 소원지 쓰기(4월~10월) 등 10월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본공연에는 가수 민해경, 편승엽, 국악인 전영랑, 비보이 MB크루와 전자바이올린 연주다 제니유가 출연한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사진&UCC 강좌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장상, 용문사 주지상 등이 수여된다. 박재완 기자


수법당장엄일체
미단 달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